

buddhanews.com

# 서불대 사태 악화일로

## 한 지붕 두 수업...폭행 시비에 탄원 고소로 번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옥, 이하 서불대) 사태가 이사장측과 황윤식 총장측의 폭행 시비에, 이사장 지옥 스님이 은사 덕해 스님을 고소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악화일로 치닫고 있다.

서불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서불대 이사회의 총장대행을 임명 받은 모 교수는 2월 23일부터 용역을 동원해 황윤식 총장의 출근을 저지했다. 이사회에 반발하는 교수의 출입도 막았다.

급기야 3월 4일에는 이사장 측 교수와 실랑이를 벌이던 학생이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12일에는 교수협 소속 조육경 교수가 구급차에 실려 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총장대행이 용역을 부르고 학사행정을 위한 컴퓨터를 탈취하는 등 학내구성원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사장 지옥 스님과 총장대행 이모 교수는 교수, 학생, 직원의 권한을 침탈하는 언행을 그치고 불법적 업무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총장대행측은 총장직 무대행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적법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용역을 동원했다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고공한 경비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사장 지옥 스님은 은사이자 서



서불대 사태로 교수협 소속 성승연 교수(오른쪽 가운데)가 용역의 방해속에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로비에서 수업하고 있다.

불대 설립자인 덕해 스님(前 이사장)을 지난해 11월 차량 불법취득 혐의로 관할 금천경찰서에 고소했다. 법원 판결로 복귀한 황 총장이 1월 13일 교무회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려 했으나 지옥 스님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옥 스님이 은사 덕해 스님을 고소한 것은 서불대가 구입한 차량을 덕해 스님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차례 반환요청에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3월 12일 조계종 호법부에 "상좌의 은사에 대한 폐륜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제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계종 승려법 제47조에 따르면

“승려 사이의 문제를 중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사회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을 행한 자(14항)”, ‘은사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를 한 자(21항)’에 대해 공권징치 5년 이상 제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불대와 관련해 조계종 호법부에 사건이 접수된 것은 두 번째다. 지난해 접수됐던 진정서는 법원의 중재에 따라 진정인인 학생회측이 직접 취하했다.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은 조계종 호법부에 "상좌의 은사에 대한 폐륜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제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동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 Peace In Tibet! 티베트에 자유를!

## 韓, 中대사관 앞 시위...달라이라마, 티베트 봉기 50주년 성명

티베트 평화 민주봉기의 50주년인 3월 10일을 맞아 서울 중국대사관 릴레이 시위를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고 인권탄압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랑젠(RANGZEN), 록빠(RTFC), 티베트하우스코리아,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등 20여 개 단체 관계자 100여 명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티베트의 평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남가 스님(티베트하우스코리아 대표)은 "티베트 인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종교, 언어, 문화적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다"며 "오

늘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봉기 50주년 성명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티베트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리, 평화, 자유를 추구하는 한국인들도 티베트를 지지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여 개 단체의 성명서 발표 후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됐으며 오후 7시부터 보신각에서는 티베트 독립과 평화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3월 10일 다람살라에서 열린 티베트 봉기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중도노선' 지속 의지를 분명히 하며, 중국정부에 '대 티베트 자치(Greater Tibet: 티베트 자치구 뿐 아니라 티베트인 밀집지역 전체를 하나의 정치

적 실체로 통일하려는 시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달라이 라마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합법적인 자치권을 원한다"며 "티베트를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 정부는 티베트와 티베트 국민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쳐왔

고 티베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그런 선전에 휘둘리지 않기를 중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며 티베트인에 대해 제대로 배우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에 대한 억압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조만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미 의회는 3월 9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티베트를 위한 국제 캠페인 리셉션'을 열었다.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도 티베트기인 설산사자(雪山獅子)기를 게양해 티베트 독립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이은나 기자

##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유치원·초교 준공식



월주 스님이 캄보디아 따께오 주지사 등이 참석한 준공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캄보디아 천진불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3월 10일 캄보디아 캄푸에서 따께오 공생초교 및 양양 공생유치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월주 스님과 캄보디아 따께오 캄푸주지사를 비롯한

따께오, 양코체이 마을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영화사와 금호아시아나가 후원한 이번 교육시설 건립 외에 지구촌공생회는 꼬랑야오 유치원과 끄나이 초교설립·운영을 비롯해 '생명의 우물'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10·27법난 피해자 위한 사료관 건립”

### 3월 11일부터 명예회복 신청 접수

“10·27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 사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은 3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강조했다.

원학 스님은 “10·27법난 당시 100만여 명 이상의 불자들이 개종 또는 불교에 등을 돌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은 물론 역사 사료관 건립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현 정부는 적정수준 피해보상으로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제정에 최선을 다한 만큼 보상이나 역사사료관 건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법난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피해자와 피

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대상으로 명예회복 신청을 받는다. 10·27법난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는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피해자와 유족 및 피해종교단체는 명예회복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위원회(전쟁기념관 내 위치)에 방문·우편접수하면 된다. (02)748-5555

한편, 원학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부처님오신날 서울시장 앞 광장 봉축 상징물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을 형상화한 장엄등이 될 전망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원학 스님은 “2008년 문화재청 보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던 미륵사지 석탑을 보고 인상이 깊어 올해 부처님오신날 장엄등은 석탑을 모델로 정했다”며 “석탑에 실제 풍경소리를 설치하는 등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불교환경연대, 일반인 오체투지 순례 프로그램 개최

###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 선출

3월 28일 계룡산에서 시작해 수도권 일대에서도 진행될 오체투지 순례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순례 일정에 맞춘 일반인 오체투지 체험 프로그램으로 생명평화 인식확산에 나선다.

불교환경연대는 3월 28일 계룡산 갑사 순례 및 오체투지 계룡산 천고제 현장 및 순례단 동참을 시작으로 4월 4일 등학사(2차), 4월 11일 마곡사(3차), 4월 18일 각원사(4차), 4월 25일 칠장사(5차), 5월 2일

웅주사(6차), 5월 9일 봉녕사(7차) 순례를 진행한다. 서울 순례구간인 8-11차는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참가비 2만원.

이와 더불어 불교환경연대는 3월 20일 도선사 해자 스님, 4월 19일 조계사 청화 스님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전국 사찰에서 환경법회를 열고, 오체투지 상담 및 체험수기 공모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불교환경연대는 “경인운하 등 정부의 녹색 콘크리트 성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삶

속에서 환경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3월 10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집행위원장으로 현각 스님(성불원 주지·사진)을 추대했다. 총회에서 상임대표직을 사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던 수경 스님은 현재까지(3월 13일) 대표직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02)734-1915

노덕현 기자



# 경제살리기 운동 불심 증흥발전원, 경제증흥발전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빌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매월 정기법회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한다.

### ■ 특별혜택 :

- 1.순금계금 95만원만 지불하고서 잔액 155만원은 정월, 4월, 7월,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
- 2.명찰(개당 1500원)을 108개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 3.법륜대 안에 보일듯 말듯한 부처님의 미소가 뚜렷히 보이면 소원 성취 된다고 알려지는 권선문을 보내드립니다.

■ 주문수량의 한계로 36분한정으로 1치분을 마감합니다. 월 5000원이 모여 1년 60,000,000원이 됩니다.

###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이름명패



특허의 기술 전통상감장지투각 높이 110cm / 폭 45cm 무게 약 25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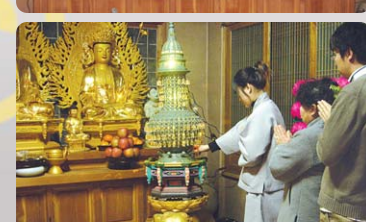
##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느때보다 어려운이때 사찰경제발전의 전령사이자 포교의 구축이 될 법륜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사중살림 성정의 기폭제를 위한 발원으로 태어난 작품이 오는 3월 26일 ~ 30일까지 불교 산업 박람회 (부산해운대 백스톤)에 전시 됩니다.

특히 이 기간에 직접 신청하신 스님에게 우선으로 봉안 설치하여 드립니다.



한분 한분, 부처님을 조각하는 정호스님